

1. 들어가는 글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선교에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선교 역사가들의 가혹한 비판이 지난 20세기 중반에 있었다. 특히 영·미 계열의 학자들이 비판¹⁾을 가했던 것은 특별한 경우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북미의 역사가인 호그(William R. Hogg)에 의하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선교적 차원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압도적이며, 거의 이구동성으로 일치하는 증거로 보여진다”²⁾ 라고 말했다. 그는 루터의 신학 속에는 선교가 부재(不在)하며, 칼뱅(Calvin)의 글 속에는 선교 신학의 긍정적인 인식이란 없으며, 쾰링글리(Zwingli), 부처(Bucer), 닉스(Knox) 그리고 멜랑히톤(Melanchton)과 같은 개혁자들을 고찰하더라도 모두가 유사하게 부정적인 결론만을 얻는다고 확언을 했다. 이와 근본적으로 같은 사상적인 체계를 따르는 선교 역사가 곤잘레스(Justo Gonzalez)는 루터의 작품 속에서 몇몇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조명하려고 가져왔더라도 다른 개혁자들과의 사이에는 몇 가지의 다른 인식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³⁾

1) Stephan Nei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Harmondworth: Penguin, 1964); K. S.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Grand Rapids: Zondervan, 1970);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New York: Orbis Book, 1991).

2) William R. Hogg, *The Rise of Protestant Concern, 1517-1914*, G. Anderson, de., *The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s* (SCM Press, 1961), 99.

16세기에 니콜라이(Philip Nicolai, 1556-1608)가 “종교 개혁자들에게 선교가 있다”는 논제를 내세웠고⁴⁾, 17세기에는 폰 벨츠(Justian von Welz: 1621-1666)는 루터의 신학에 교회의 “자발적인 확장”이 곧 선교의 증거임을 들어 내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 바르넥(Gustv Warneck)은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을 향해 비판의 집중 사격을 감행했다.⁶⁾ 그의 작품은 바로 기독교 전통에서 선교의 역사를 쓰기 위하여 첫 번째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의 이런 업적은 크게 주목을 받을 만하고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영어로 번역되었고, 그의 후기 작품들의 기초로서 제공되었다. 그러나 바르넥의 생애 동안에는 이미 독일의 그의 동료들은 개혁자들과 그들의 선교라는 논제에 대해 공격을 감행했다. 처음 19세기 중반에 루터란 학파의 대부분 학자들인 드류(P. Drews), 플랏(G. Plitt), 엘러트(W. Elert), 홀스텐(W. Holsten), 겐지헨(H. G. Gensichen) 등은 바르넥의 논문에는 반대 편에 섰던 것이다.⁷⁾

우선 두 학파들(영. 미권과 독일 신학자들) 사이의 대조 가운데서 특별히 베르너 엘레트(Werner Elert)를 찾아본, 루터에 정통한 엘레트에 의하면 루터는 “그리스도 복음의 선교에 범우주적인 목적을 확신했다”⁸⁾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이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과정이란 진행 중에 있는 행위 즉 발생하거나, 중단 없이 발생하는 행위”인 것을 확신했다고 덧붙인다.⁹⁾

3) S. H. Rooy, *The Reformers and Missions* (Signposts of God's liberating Kingdom perspective for the 21st century. IRS, 1998), 187에서 Justo Gonzalez, *Historia de las misiones, La Aurora* (Bueanos Aires, 1970), 184-186의 글을 번역 및 인용함.

4) Willy Hess, *Das Missionsdenken bei Philip Nicolai* (Hamburg: Friedrich Wittig Verlag, 1962), 90-96.

5) David Bosch,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125f.

6) G. Warneck, *Abriß einer Geschichte der Protestantischen Mission* (Berlin: Verlag von Martin Warneck, 1899), 9.

7) 영.미권의 학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독일어권의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Hans Werner Gensichen, "Were the Reformers Indifferent to Mission?," in *History's Lessons for Tomorrow's Mission* (World Students Christian Federation, 1960); Karl Sell, *Der Ursprung der Christlichen und der modernen Mission,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III* (Tübingen: Mohr, 1928); Walter Horsten, *Reformation und Mission,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Vol 44 (Stuttgart: Ev. Missionsverlag, 1953); Wolfgang Schäfele, *Das missionarische Bewußtsein und Werken der Täufer* (Neukirchen-Vluyn: Verlag des Erziehungsvereins, 1966).

8) Rooy, *The Reformers and Missions*, 188.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의 선교에 관한 평가가 서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선교에 대한 언급과 아울러 16세기의 한 시대 동안에 루터와 칼뱅에게 선교 신학과 선교의 실천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이 본 소고의 목적이다.

2. 루터와 그의 선교

2.1. 선교의 중요성: 목표

루터의 작품에 나타난 선교관 인류를 위해 선한 의도를 지닌 선교사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창시자는 곧 하나님인 것이다. 초자연적인 간섭이란 것은 곧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행동하시는 것이다. 루터의 설교 본문들 가운데 마가복음 16:14에서는 호수 가운데로 돌을 던질 때 보이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밝히 나타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자체 주위로 원과 파장을 일으킨다. 그리고 물결은 더 멀리 일렁거리고, 물결이 호수 가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의 원이 또 다른 원을 밀어낸다. 중심에서는 조용해진다 해도, 물결은 쉬지 않고 호수가 쪽으로 밀려간다. 이 같은 일들은 설교에서도 일어난다. 설교는 사도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나, 교부들에 의해 이어졌고, 세상에 여기 저기서 설교자들에 의해 전해지는 것이다. 비록 여행 도중에 억제 당할 지도 모르고, 이교들 속에서 변질될 지도 몰랐지만, 내쫓겼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한번이라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¹⁰⁾

복음은 그 자신의 진행 과정을 가진다. 복음의 물결이 세상과 인간 역사의 종말과 지구의 극단에 도달할 때까지 한 민족에서 또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 흘러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배후에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역동적인 힘으로 도달하도록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선택된 백성을 소유하신다. 말하자면:

9) 엘레트는 바르낙의 논쟁에서 선교가 16세기에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것으로 만 이해를 피하는 논점을 제공한다. 참고할 서적은 *Wihlem Maurer, Reformation und Mission in Lutherisches Missionjahr buch, 1963.*

10) Sermon on St. Mark 16:14, Ascension Day, 1522, *Weimer Ausgabe (WA)*, vol. 10, III, 140, line 1-10.

옛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편 2, 19편에서 세상 전체를 통하여 확산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처럼 기독교 교회는 로마 교회와 교황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상의 영역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황과 터키족, 페르시아인, 타타르인들 사이에 물리적으로 이산(離散)되어진다¹¹⁾

여기서 루터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민족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진 과정은 하나인 것이다. 즉, 신앙의 역사와 하나님 선교의 역사는 하나라는 것이다.

2.2. 선교의 대리자: 파송 받은 자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¹²⁾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성령은 모든 인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도구를 가지고 계신다. 처음에는 사도들로 하였고,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서는 설교자들과 선교사들과 아울러 교회를 사용하신 것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그분은 기독교 선교의 전진을 위하여 지원과 확보된 공간 그리고 방어를 위한 책임을 지니시는 것이다. 각 신자들은 선교의 대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이 직무는 범우주적인 제사장 직무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터에게서 표현된 이런 각각의 대리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령: 루터는 “성령의 불이 육신 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삼키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 세상에서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한 공간을 준비하신다”¹³⁾ 고 확신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역하심으로 죄의 세상의 중심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회: 교회로 인해 수행되는 것이 선교라고 루터는 확신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의 시대의 교회가 이런 위임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난했다. 이전 시대까지 진실로 기독교인으로 불리는 몇몇의 사람들만이 그 사역을 수행했다고 언명했다. 그는 그 시대에 오로지 독일 인구 10분의 1만이 주님에게로 향함으로 교회 신자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했다.

11) Confession on the Lord's Supper, 1528, in *Luther's Works*, Concordia, St. Lois, vol. 37, 367.

12) *missio Dei*는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으로 번역하지만, 현재 왜곡된 WCC의 New Mission 개념과는 다른 성경적인 선교를 지칭하는 것이다.

13) Sermon on Zechariah 12:6, 1527, *Weimer Ausgabe* vol. 23, 645, I. 33.

그러므로 독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과 전 세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다수의 이교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¹⁴⁾

사도들: 여기서 한가지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은 사도들이 선교 명령을 이미 성취시켰다는 것과 후대의 교회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믿었고 많은 영, 미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호그(Hogg)는 이런 사실을 인용하면서 “어떤 이들은 루터의 저서들이나 마태복음 28:19-20 이나 마가복음 16:15의 주석에서 기독교 국가로 가는 교회의 책임성에 대한 힌트가 있음을 경솔히 여긴다”¹⁵⁾고 증언한다. 1536에 설교했던 마가복음 15:14-20의 설교문에서는 루터가 소위 대위임령(Great Commission)과 서 인도(West Indies)에 대해 언급한 것이 보인다.

여기서 “가라 온 세계로” 라는 말씀에서 만약 사도들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그것을 단언할 것인가? 질문이 일어난다. 어떤 사도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시대에 이교도들이 사는 곳에 아무도 그들에게 전파했던 사람은 없어도 많은 섬들은 발견되어졌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은 말한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시 19:4, 롬 10:18). 다시 표현하면 그들의 설교는 온 세상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온 세계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했다. 전진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마지막 날까지 더욱 많은 지역과 시간으로 선포되는 것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설교하고, 선포되어 말씀이 들리게 될 그 때에 메시지는 보내어지는 것이고, 어느 곳이든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때에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것이다¹⁶⁾

설교자와 선교사: 모든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설교자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만일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여서이건,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설교자를 보내어야 하는 것이다.”¹⁷⁾ 이런 선교의 중요

14) Conferences on Isaiah, 1527-1529, *Weimer Ausgabe*, vol. 25, 365, I. 17.

15) Hogg, *The Rise of Protestant Concern*, 98.

16) Sermon on Mark 16:14-20, Ascension Day, 1536, *Weimer Ausgabe*, vol. 21, 383-410.

성을 확언하기 위하여 루터는 “그러므로 모든 이들의 최선의 사역은 이교도들이 우상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끌어지도록 했던 것이다”.¹⁸⁾

루터는 불신자들과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학생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설교자들을 파송했다. 게다가 뷔텐베르그(Wittenberg)의 그의 동료들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증원시켰다. 독일 내에서 몇몇 거부자들조차도 프랑스와 영국,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스웨덴(Sweden), 덴마크(Denmark), 아이슬란드(Iceland), 프리시아(Prussia), 폴란드(Poland,) 헝가리(Hungary), 슬라비아(Slavic)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었다.¹⁹⁾

국가와 민족: 국가와 민족이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할 때마다 전파할 수 있는 장소(場所)를 마련한다. 그러나 국가 정부는 이것 이상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할권 아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서로 뒤섞어 버릴 권위는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이다.. 복음이 있든지 간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르침과 신앙으로 진행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통치자도 없다. 만약에 선동과 반항의 가르침을 방해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²⁰⁾

모든 그리스도인: 선교의 사역은 특권을 가진 전문가들이나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19-31의 설교에서 루터는 21절의 선교 명령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루터는 다음과 같이 확신을 가지면서 설명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당신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즉, 모든 기독교인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에 관해 교육하며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²¹⁾

17) Exposition of Psalm 117, 1530, *Weimer Ausgabe*, vol. 31. I, 229, I. 8.

18) Sermon on Matt. 23:15, 1537-40, *Weimer Ausgabe*, vol. 47, 466, I. 5.

19) James MacKinnon, *Luther and Reformation IV* (Longmans & Green: London, 1930), 337-360.

20) Exposition of I Peter 2:17, 1523, *Luther's Works*, vol. 30, 81: Exhortation to Peace, 1522; *Works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Homann & Castle Press, 1931), vol. IV, 224.

21) Ewald M. Plass, *What Luther Says*, vol. 11. (St Louise, 1959). n. 3017 에 인용한 Sermon on John 20:19, 1523.

신앙인이 세례를 받을 때에 모든 신자는 이미 선교사로서 인정된 것이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신앙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할 의무를 통하여 이것을 행하기 위해 아무도 파송의 지명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이교도이든, 오류 속에 있는 크리스천이든지, 그들에게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²²⁾

2.3. 선교의 동기

루터 선교의 동기들에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이 그에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었다. 그가 시편 117편을 설교할 때(Praise the Lord, all you nations-NIV), 여기서 ‘너희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독일과 헝가리, 보헤미안, 폴란드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모든 이교도들이라고 루터는 설명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루터는 시편 19편과 선교적 명령(Mark 16:15)인 “가라 온 세계로” 에 주석을 달았다. 이것은 모든 민족의 신자들과 모든 자연 그리고 이교도들도 다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to glorify God), 루터는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다.

두 번째 동기는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이교도들에게 그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사실이다.²³⁾ 혼인 잔치의 손님 비유를 설교한 루터의 설교문에서(마 22:2f),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한다. 그에게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종들은 밖으로 나가서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초청한다”²⁴⁾ 고 말한다.

세 번째는 동기는 백성들의 회심(Conversion)과 교회의 성장(Church Growth)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하신다. 즉,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변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²⁵⁾ 그런 변화를 경험한 인간은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는 존재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방법으로 신자의 전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22) The Rights of a Christian Community, *Weimer Ausgabe*, vol. 11, 412, I. 16

23) Exposition of Psalm 117, 1530, *Weimer Ausgabe*, vol. 31. I, 229, I. 19.

24) Sermon on Matt. 22:2ff, 1533, *Weimer Ausgabe*, vol. 37, 181, I. 15.

25) Exposition of Zechariah 2:6, 1527, *Weimer Ausgabe*, vol. 23, 533, I. 10.

루터의 생각에 교회를 심판하는 이유가 루터교, 프로테스탄트, 혹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서로의 이름을 양산하는 것이라면, 결단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존재하는 전투적인 교회로 존재하는 것만이 범주로 삼을 수 있다. 건전하고 성령의 말씀을 찾게 되는 장소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고 성장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²⁶⁾

네 번째인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복음이 널리 퍼지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즉 “전 세상을 통하여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생성케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따르는 것이다.”²⁷⁾ 이 나라 속에서는 유대인과 이교도들의 구별이 없는 것이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사하는 은혜는 유대인의 경우와 이교도들의 경우가 다르지 않다. 또한 십자가와 죄로부터의 구원은 모든 장소 즉, 유대인과 이교도들 사이의 양쪽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도 특별히 주목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다.²⁸⁾

2.4. 선교를 수행하는 장소:

루터는 그의 저서에서 복음의 범우주적 함축성을 빈번하게 강조한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나” (창 22: 17-18)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내린다.

“복”(blessing)이란 단어는 유대인에게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하나님께서서는 두, 세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 세계에 주시고자 하시며...그 복이란 세상의 저 먼 곳까지 진행했었고, 유대인들 이외의 이교도들에게까지 진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전진해 나갈 것이다.²⁹⁾

루터는 유대인들이나 터키인들, 이교도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불신자들의 세상과 만남의 어떤 방법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주목했다. 여기서 루터가

26) Works on the Psalms (19:5), 1519-21, *Weimer Ausgabe*, vol. 31-I, 232, I. 27.

27) Exposition of Psalm 8, 1530, *Weimer Ausgabe*, vol. 31-I 285, I. 10.

28) Exposition of Psalm 102:17-18; *Luther's Works*, vol. 14; Selected Psalm III, 185.

29) Exposition on Gen. 22:17-18, 1527, *Weimer Ausgabe*, vol. 24, 391-392.

이교도들에 관해 말했던 것은 그가 다른 그룹들 이외에도 제안한 것이다.

2.5. 선교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전파: 루터의 선교 방법론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있었다. 따라서 이교도들에게 향한 선교 임무는 “이교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들이나 이교도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교도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³⁰⁾고 요구한 것이다.

루터는 헌신하여 설교자로서 준비해 왔던 뷔텐베르그의 외곽 지역에 선교를 위한 말씀을 전파할 장소로 삼았다. 대학과 루터는 복음의 선교사와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유럽으로부터 온 많은 학생들을 매료시켰다. 그들 중의 몇몇은 네델란드, 잉글랜드, 폴란드, 보헤미아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온 이주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독일에게 유능한 선교사들이 되었다.³¹⁾ 다른 이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종교 개혁의 작업을 불러 일으켰다. 교회를 확장시키는 루터의 제자들의 사역은 중요한 것이었다. 루터와 함께 연구했던 사람들은 1529년에 스웨덴에서 프로테스탄트교회를 설립했으며, 1537년에는 바사 왕 구스타프의 지원으로 덴마크에서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스웨덴과 북쪽에 있는 라프(Lapps)사이의 지역을 위한 사역을 위해 떠났고, 프리무스(Primus)와 타버(Taber), 폰 조네그(Baron Ungnad von Sonnegg), 뷔텐베르그(Wittenberg)로부터 남쪽에 있는 슬라브(Slavs)로 갔다. 아이스란드의 고트찰켄(Gottschalken), 스웨덴의 올라브(Olave)와 로우렌스 페터슨(Laurence Petersen), 덴마크의 마틴 라인하르트(Martin Reinhard)와 한스 타우센(Hans Tausan), 발틱 지역의 브리스만(Brissmann)과 스페라투스(Speratus), 폴란드의 라스키(Laski)와 다수의 이주 학생들과 헝가리의 데바이(Devay),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개혁운동의 확장을 위한 열쇠가 되는 사람들이었다. 루터에게서는 이런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루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God's fold) 밖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³²⁾

신앙의 개인적 증거: 모든 기독교들의 임무는 신앙을 증거 하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설교자라는 수단으로서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

30) Exposition on John 10:16, 1523, *Weimer Ausgabe*, vol. 122, 540, I. 1.

31) Rooy, *The Reformers and Missions*, 194.

32) Ibid.

는 것이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대한 것에 언급한 것을 보면 루터는 그 목동들이 구주의 탄생의 반응이 “오로지 그 자신만을 위해 들어야 하는 사람은 없고, 모든 이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이끌어지게 하며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로서 그가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는 것이며, 그를 돌보는 것이다”³³⁾라고 관찰했다.

자발적 회심: 루터의 전 생애 동안에 그에 의해 설교되어진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설득의 필요성을 특성화했다. 1530년 후에 그는 어떤 규제가 일반 공중을 혼동케 할 수 있었던 종교적인 실행을 묶어 놓았고, 또한 도덕의 교훈을 보증하였을 지라도,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것에 관하여 변하지 않았다. 그는 1542년에 소책자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항거하여”를 썼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실을 비난하지 않는다. 아무도 믿을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우리는 그들에게 비난을 쏟아 붓거나 신체적으로 그들에게 해를 가해서도 안 된다”³⁴⁾고 가르쳤다.

상황에 대한 위임: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루터는 변화된 삶의 총체란 비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자체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독교인 자신들의 비도덕적인 삶인 것이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신앙에 관하여 말한다.

나는 하나님 그분의 영예와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인정하는 진실함과 자비심을 그 분께 드린다.…지금 내가 이런 영예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내가 나의 이웃을 위해 돕거나 도와주는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나는 다른 이에게 신앙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증명해야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에 다른 이들이 따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이웃모두를 섬겨야만 하는 것이다.³⁵⁾

두 번째 측면은 기독교 선교사의 임무는 복음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자신 스스로의

33) Hans Gensichen, *Were the Reformers Indifferent to Mission?* (The Student Word, 53, 1960), 125. Sermon on Christmas (Shepherds of Bethlehem).

34) Rooy, *The Reformers and Missions*, 195.

35) Exposition of I Peter 1:15-16, 1523, *Luther's Works*, vol. 30, 32-33; *Weimer Ausgabe*, vol. 12, 288, I. 7.

삶에 메시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선포된 메시지는 보이질 않지만, 말씀은 듣는 자에게 메시지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원적인 의미와 심오한 사상을 보존하여 각각의 청자들이 실존적인 경험에 의거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듣는 자들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은 바로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또한 말씀은 변화를 겪어야만 한다”³⁶⁾

출판된 말씀: 1517에서 1520사이에 루터의 종교적 저술은 25만 부 이상이 출판되었다.³⁷⁾

기독교 교육: 대학이나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소년, 소녀들을 위한 대중적인 새로운 학교에서 가르쳐진 기독교 교육은 복음 메시지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도구였다.

선교 도구로서의 음악: 루터는 “노래하는 것은 솔직히 세상 앞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즉, 심판과 은혜와 도움과 위로 등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높이 기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의 공적 신앙 고백이며 선포의 한 종류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주석에서 말했다.³⁸⁾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재빨리 이러한 찬양을 배웠다. 한 증인에 따르면, 장인(匠人)들은 일하는 동안 찬송을 불렀고, 소녀들은 빨래할 때에, 농부들은 쟁기질을 할 때,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요람에 눕힐 때 불렀다는 것이다. 한 저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한 사람이 새로운 신앙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러한 옮겨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전 도시민 계층들에게 들리게 되었을 때, 화가 난 낭만주의자들이 “루터의 노래는 그의 모든 책들과 팜플렛들 보다 더 영혼을 저주한다”³⁹⁾고 말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36) Conference on Romans 10:16, *Weimer Ausgabe*, vol. 56, 428, I. 18.

37) Rooy, *The Reformers and Missions*, 195.

38) Exposition of Psalm 118, 1530, *Weimer Ausgabe*, vol. 31-1, 141, I. 22.

39) Rooy, *The Reformers and Missions*, 196.

신앙의 기도: 루터에 따르면, 선교 사역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도이다. 그의 시편 120편 주석에서 그는 기도의 긴급성에 관한 해석을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란...오직 한 가지 일이 남아 있다. 그것은 열심히 기도하며... 잘못 이끌려진 장님들이 당신들의 열정에 의해 뜨거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찬양으로 길을 가야 길을 당신들의 선한 삶에 의하여 조명되어질 것이다”⁴⁰⁾ 라고 역설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그의 범 우주적인 의도를 인식하게 된다. 그의 자손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목적인 전 세계 복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도의 무기가 쥐어 쥐어 한다는 것이다. 1524년에 밀텐베르그의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나타나 글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설교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축복과 힘을 지닌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말씀의 선포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법이 옳은 길로 이끄시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⁴¹⁾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증거들의 근거에서 보면, 루터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의 관심은 선교를 정의를 내리는 데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선교를 수행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가 왜곡되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사 즉, 사도로 변모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선교의 그의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는 진실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그 시대를 지배했던 종교적인 체제를 공격했던 것이다. 그에 의한 역동적인 운동이 뻗은 영역은 온 세상으로서,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교사들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2. 칼뱅과 그의 선교

칼뱅은 루터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와 창조의 통합적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웃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수단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이다.

40) Eduardo S. Ninde, *Diecinueve siglos de canto cristiano* (La Aurora, Buenos Aires, 1948), 75d의 글을 Rooy가 번역한 것. Rooy, *The Reformers and Missions*, 196.

41) Letter to the Christians of Miltenberg, 1524, *Luther: Letters of Spiritual Counsel*,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XVI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206-207.

2.1 선교의 대리자: 파송된 자들

칼뱅의 선교에 관한 관점 중의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는 지구 종말까지 수행하여야 할 명령과 연결되는 것이다. 많은 해석자들은 이러한 임무는 사도들에게만 부여되었고 그 후 세대에게는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칼뱅은 믿었다고 말한다. 칼뱅은 사도들과 현 목사들과의 사이에 구별된 점인 이런 결론을 내릴 의혹의 기초를 약간 제공한다. 우리는 그런 결론의 진위를 위하여 교회의 임무에 대한 그의 정의를 분석해야만 한다.

목회자들. 하나님은 인간 도구라는 수단으로 그의 세상에서 사역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으시고 다만 파견자로서 “그분이 고용하신 사람들을 목회에 사용하신다.”⁴²⁾ 하나님은 “그의 비밀스러운 뜻이 해석되고, 인격적 현존으로 행동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대사가 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칼뱅이 대사(Ambassador)를 세밀하게 하는 묘사들 가운데 교회에서 이러한 대사들의 위치를 설명하는 곳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 나타난다.

그의 핵심적인 글귀들이 다섯 가지의 사무와 함께 에베소서 4:11에 나타난다. 이것 중에서 가장 우선 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의 주님의 사역에 진작시키는 목회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목회자들 중의 셋이 사도들, 전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로 일시적인 자들인 반면에 나머지 다른 두 직분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목사와 교사라는 것이다. 일시적인 직무들이란 이방인들이 첫 시대 동안의 선교 명령 속에 포함되었을 때 복음의 전파의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던 반면에, 영원한 직무란 복음 전파의 연속성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주님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명령인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는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열 두 사도를 선택하셨다. 아무도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온 세상이라는 말에는 글에게 주어진 과제였으며,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기 위한 그 명령의 표현을 약간 바꾼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가능한 곳은 어디든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서게 하실 것이다.⁴³⁾

칼뱅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 가운데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중요성을 같은 비중으

42)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 3, 1.

43) *Institutes*, IV, 3, 4; Comm., on Titus 1:5, I Cor. 12:28.

로 두고 있다. 비록 전도지들은 사도들에게는 위엄에 있어서 아래이지만, 양쪽은 모두 같은 목회 사역인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므로 목사들이란 신실한 복음의 전파와 성례를 베푸는 일로 통하여 사도들의 계승자인 것이다. “단어의 뜻과 어원학에 의거하면 그들은 모두가 주님께 의해 파송 되었고, 주님의 메시지 전달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사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⁴⁴⁾ 그러나 “사도”(Apostle)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바울을 포함한 열두 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여서 보통으로 사용되어졌다. 사도들과 목사들과의 차이점이라면 그들이 행하는 일련의 사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사역을 행할 장소에 의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고전 9:16)라고 한 말씀은 그들 모두를 향하여 말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결론으로 사도들이 온 세상으로 향하여 행했던 모든 일들을 각각의 목사는 파송 받은 대로 교회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다⁴⁵⁾

임무가 같음으로 인해 우리는 만약에 사역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 선교 신학에서 기초가 된다거나 혹은 오히려 치우쳐진 논점이라면 의문이 생긴다. 우리는 이 논점을 뒤에서 논할 “선교의 장소”에 관해 논할 때에 이 의문에 대한 것을 고려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주제와만 관련하여 생각하려고 한다. 첫째는 칼뱅이 용어들을 정의한 다른 방법들에 관해서이며, 두 번째는 그가 제안한 특별한 예외들과 조건들이다.

(a) 용어의 시용:

칼뱅의 갈라디아 1:1 주석에서 사도성이란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이 속한 계층이 무엇이든지 복음의 설교자라는 것을 언급하며, 다른 곳에는 사람들에게 의해 투표로 선출된 목사들과는 구별하여 주님이 직접 택한 교회의 최상의 부류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를 지닌다. “그런(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목사를 선출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이다. 하나님 이 하늘로부터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계시하기까지 기다리기 위한 권리가 부여된 적이 없다”⁴⁶⁾ 라고 표명한다.

그의 에베소서 4:11의 주석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사도라는 단어는 용어의 기원이 정당하다고 증명할 만한 일반적인 인식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최상의 영예로 높이는

44) *Institutes*, IV, 3, 5.

45) *Ibid*, IV, 3, 6.

46) *Commentary*, on Galatians 1:1. (Edinburgh, 1960).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 자체의 특별한 중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의미에서 열두 명이었고, 나중에 바울이 충원되었다. 그들의 직무는 온 세상에 복음의 교리를 퍼지게 하는 것과 교회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의 공동체인 교회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⁴⁷⁾

그의 고린도전서의 주석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문제에 접근한다. 바울은 두 가지의 의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에 대해 말하며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갱생시키는 영혼들을 위해, 죄의 용서를 위해, 인간의 새로운 마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리고 사단의 파괴시키는 힘을 막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멀리 보내어진 사람들인 목회자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은 나무를 심는 것과 물 주는 명령을 받은 것(전 3:7)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성장을 감찰하기 위해 받았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후의 목회자들은 나무를 심는 것과 물 주는 같은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의 비범한 능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이한 점에서, “하나님은 목회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목회자 속에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다.”⁴⁸⁾ 사도가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는 말을 할 때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존해서는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신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냥 적합한 중재자일 뿐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도들과 목사들의 두 가지 차이점이란 명백한 것이다. 즉, 첫째는 사도들은 사역의 효력있는 기초를 보장하기 위하여 목사들의 은사를 넘어서는 성령의 은사를 지닌다. 둘째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일반적인 회중을 위한 것이었던 반면, 목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특별히 각각의 회중을 위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목사들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사도들과 같이 동일한 임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칼뱅의 경우에 사도들이란 용어의 광의(廣義)로 볼 때 바로 목회자들이었으며, 이 또한 바꾸어 말하면 목사가 바로 사도들이었다.

(b) 예외들(the exceptions) :

칼뱅이 어떻게 이러한 구별들을 응용했는가를 보기 위해 그가 내린 정의인 "예외들"을

47) *Comm.*, on Eph. 4:11.

48) *Comm.*, on I Cor. 3:7.

주목하고자 한다. 칼뱅이 일시적인 직무(사도들과 전도자)들에 관해 말할 때 그는 즉시로 "시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특별한 경우를 불러 일으키신다"라고 지적했다. 조금 뒤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에 행하신 것처럼 때로는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의 도움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배교에 대항하며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확인한다.⁴⁹⁾

루터의 사상의 흔적이 있는 글에서 칼뱅은 루터를 고려하며 쓴 소책자에서 "복음의 순수함을 위한 그의 노력과 목회를 통해서 그런 영예스러움을 얻었던 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도"⁵⁰⁾라고 진술한 대목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역시 바울이 말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롬, 16:7)는 것을 주목하며, 바나바는 사도라고 불려질 영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고 지적한다.

칼뱅은 바울 서신에서 주석한 것과 같은 정의를 이사야 주석에서 계속 진행해 나아간다. 그러나 그리스도 시대에 칼뱅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 설명할 때 "사도들과 다른 교사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퍼지게 했다고" 묘사한다. 즉 선교는 단지 사도들의 손에 의해 의존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⁵¹⁾

칼뱅은 그의 회중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목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인식한 칼뱅 자신은 그의 목회지로 떠난다. 그는 목회지의 충실한 목사를 만드는 원리는, 타인을 돕기 위해서 회중 밖으로 나설 수 없다거나, 공적인 필요성이 그런 일을 요구할 때에도 어떤 다른 장소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⁵²⁾ 칼뱅의 관심은 회중 속에서 사역하기 위하여 배타적으로 목사의 목회 기능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찾은 방법이란 그의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긴급히 지역마다 내적인 개혁의 연속성이 교회 내에 보장하기 위하여 확실한 질서를 기초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회: 복음 전달을 위한 교회의 첫 번째 도구는 설교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사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다. 간접적으로 목사는 화해의 목회를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다. 그리

49) Ibid, IV, 3, 4.

50) Rooy, *The Reformers and Missions*, 200.

51) *Comm.*, on Is. 2:3.

52) *Institutes*, IV, 3. 7.

스도는 신앙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실한 교사들(목사와 교사)을 세우셨다.⁵³⁾ 많은 민족으로부터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음은 주의 강림으로 인해 많은 수의 신자뿐 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서 교회를 이롭답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시대의 같지 않는 영광은 황금 시대라고 불리는 것이다. 교회는 지상으로 풍부하지 않다. 교황의 풍부함이란 순교자의 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교회는 신부들의 태만으로 인해 오염되어졌고, 모양이 손상케 됐다.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들의 죄의 짐에 짓눌려 비참한 절망과 마귀 아래 전제 군주의 잔인성 아래, 적들의 사악한 중상들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만큼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⁵⁴⁾

선교의 시급한 임무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초를 성취하기 위한 교회의 회복이라고 칼뱅은 확인한다. 황금 시대에 그리스도의 때, 즉 교회의 쇠신과 갱신 시기는 오늘날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복음의 전파를 통해 수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다.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 이년 정도 노력하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세월 동안 근면한 전진을 이루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일을 고쳐 나가는 주의 깊은 일임에 틀림없다.”⁵⁵⁾ 종교의 회복은 역시 우리시대에 효력이 있었다. 그것이 사멸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불러진 사람들은 확실하게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앙의 진실한 직업이란 없으며, 타락하지 않은 종교란 어디에도 발견되어질 수 없다.⁵⁶⁾

교회 자체는 복음화 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주는 내용, 곧 선교의 장(場)이다. 신앙이 유대인에게 제한되어 질 때는 하나님이 바빌론이나 또 다른 곳의 백성들을 더하셨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진행을 계속하셨다. “하나님은 모으기 위해서 중단조차 하지 않으셨고, 그는 모여진 사람들에게 거대한 대중을 더하셨다.”⁵⁷⁾

“아버지는 나를 보내셨고,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는 요한 복음 20:21-22의 선교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는 복음의 통상적인 목회자들로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53) *Comm.*, on Is. 44:19, Gen. 10:1.

54) *Comm.*, on Psalm, 87. Introduction.

55) *Comm.*, on Titus 1:5, Is. 45:23

56) *Comm.*, on Gen. 4:26.

57) *Comm.*, on Is. 56:8, Ps. 102:21-22.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고, 영원한 구원의 대사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하늘로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도들을 준비하셨다. 그들의 임무인 전파하는 것은 “짧은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위한 것이다”⁵⁸⁾ 하나님은 필요한 은사들을 배풀기 위해 사도들에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사도들은 대부분 구별되어진 선포자로서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전권 대사로 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화해의 목회를 위해 그리고 은혜로 죄인들의 사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의 부관으로 모든 목회자들을 임명하셨다. “복음은 구름에서 비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어느 곳이든 보내어진 사람들의 손에 의존해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다”고 말한다.⁵⁹⁾ “하나님은 사도 혹은 목사를 따로 고려하시는 이런 일을 수행하지 않으신다.”⁶⁰⁾고 확인한다.

신앙은 복음의 전파로 오게 된다. 칼뱅은 시편 102:21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 시온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를 바벨론 도성의 종말이 오늘날 여전한 교회의 시대 대해 언급을 하면서 해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결단코 진실한 종교가 널리 전파되어진 때 그리고 교회가 증가되는 때보다 더 찬양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되어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⁶¹⁾ 교회 성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 의해, 지명 받은 도구인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 그 자체와 복음의 신실한 전파를 통해 오는 것이다.

통치자들(Rulers): 통치자들(Kings and Princes)은 교회의 방위(defence) 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려(promotion)를 위해 존재한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 왕국의 연속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종교의 공공의 형식과 인간성 사람들 사이에 유지되기 위한” 여지(餘地)는 필요한 것이라고⁶²⁾ 밝힌다. 칼뱅은 이사야 49:23의 의미를 그의 시대를 다음과 같은 말로 명백히 그린다. “그들은(Kings)...가난한 자와 빈곤의 무자비함에 대항하여 교회를 지키는 자들에게 음식과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것 모두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과 사역자들에게 공급한다. 학교들을 세우고, 교사들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 빵을 제공하

58) *Comm.*, on John 20:21-23.

59) *Comm.*, Rom. 10:15.

60) *Comm.*, II Cor. 5:20.

61) *Comm.*, on Ps. 120:21-22.

62) *Institute*, IV, 20, 2-3

며, 병원과 보호소를 세우고, 교회의 방위와 보호에 속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안배(按配)한다."⁶³⁾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강요 IV, 3.4. 에서는 “출판되고 가르쳐진, 그리고 이해되어진 당신의 땅과 영역,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 의해 찬미 받는 끝까지 위엄 있는 영토 그리고 복음을 높이는 이 교리를 지녀야 하는 것이 통치자들과 정부 총독들의 책임임을 고려한다. 이외에도,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며, 그 자신에게 충성을 확인해야 하며, ...당신은 그의 거룩한 복음을 신뢰해야 하며, 복종과 겸손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⁶⁴⁾고 한다.

신자들: 사도들과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모든 신도들은 복음이 확산 되도록 불려진 자들이다. 이사야 2:2-3의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는 구절을 그의 첫 오심에서 이 예언의 성취를 시작하셨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까지는 중단 없이 진행하여 모여들 것이다”⁶⁵⁾고 생각한다. 복음의 교리의 요인을 위해, 하나님은 만방으로부터 교회로 다 함께 모을 것이다. 신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으로 이끌리게 하기 위해 “오라”(Come)고 말할 것이다.

칼뱅은 이사야 53:1의 구절에 의거해서 백 명 중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언급한다.⁶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생의 유업을 제공하시며, 그의 백성은 모이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은 그들 중의 신자들을 도구의 수단으로 이 초청을 확장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딤후전 2:4)고 디모데에게 선언한다. 칼뱅은 모든 신자의 책임 중의 하나가 이웃의 구원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⁶⁷⁾ 그러나 신자들 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질 때에 하나님은 순수한 교리를 회복하기 위해 전도자들을 비상한 방법으로 끌어 올리셨다.⁶⁸⁾ 1554년 9월 3일 편지에서는 프랑스 Poitou에 있는 신자들에게 “우리

63) *Comm.*, on Is. 49:23.

64) *Institutes*, IV, 3, 4, “Response to Pighuis,” *Opera Calvin*, vol. VI. col. 250.으로 부터 인용된 것

65) *Comm.*, on Is. 2:2-3.

66) *Comm.*, on Gen. 9:27.

67) *Comm.*, on Titus, 2:4.

68) *Comm.*, on Eph. 4:1.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들에게 옳은 길을 보이도록 당신들을 비추이도록 보이라”고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열심히 권고했다.⁶⁹⁾

선교의 동기들

① **하나님의 영광(The glory of God)**: 선교를 수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드러져야 할 영광인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1:1-4에서 네 번씩이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의 주석에서 칼뱅은 이 근본적인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의 네 가지 양상을 구별한다.

첫째 유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God's will)의 선하신 요구이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의 중대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성화의 가장 높은 목표이다. 에베소서 1장 14절의 주석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빈번한 언급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강하게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어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⁷⁰⁾.

② **구속의 역사(The history of redemption)**: 칼뱅에게서 빈번한 구속 역사의 전진 은 민족들 사이에 복음의 확장을 위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편과 선지서들에 있는 “이방인들을 부르삼”은 칼뱅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도달되어질 것을 보기 위한 수 없이 많은 영감을 불어넣었다. 열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이후에 성전은 모든 민족에게 열린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성장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그의 신중하신 섭리 아래 있는 것이다. 시간이 차게 될 때에 복음은 어느 곳이든 퍼지게 될 것이다.

이사야 45:22의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를 주석 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으로 온 세상을 초청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진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에게 오는 것을 제외시키는 것 없이 모두에게 초청하시기 때문이다”⁷¹⁾라고 확인한다.

69) Rooy, *The Reformers and Missions*, 205.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Calvin's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of Olivetan*, 71-72.

70) *Comm.*, on Eph. 1:14.

71) *Comm.*, on Is 45:22.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에게 공개되어진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그를 보아야 한다”⁷²⁾는 메시지를 현재에 상황화한다. 그리고 계속 하여 요한 복음 3:16을 인용한다. 이사야 45:22의 주석에서 이 메시지는 “복음의 교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래 전에 기름부음을 받았던 자들에 의해, 열방에게 이미 전파되어졌다”⁷³⁾ 라는 엉터리 같은 내용이 아님을 증명한다. 23절에서 다시 칼뱅은 비록 선지자에 의해 취급된 주제임에도 “백성들의 구속, 복음의 공표, 그리스도 왕국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사야의 이 본문을 마지막 심판에 적용”⁷⁴⁾한다고 말한다. 이 목적은 완벽한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의 과정의 전부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③ **하나님 나라의 도래(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세 번째의 동기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확장이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내에 사람들의 개종 이외에 열방들의 개종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설립이다. 이사야 56:7에서 주석하며 “이 성전(the house of God)이 세상 모든 곳에 퍼져 있을 정도로 확대되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 받기 때문이다”⁷⁵⁾고 해석한다. 더욱이 칼뱅은 “열방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시 96:10)를 해석하면서 “시편기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뉘어지고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을 그에게로 하나같이 모으실 것이라는 생각”⁷⁶⁾으로 이 자동 장치의 면들을 묶는다.

칼뱅이 왕국의 많은 바깥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복종에 이르렀던 때에 그리스도의 도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선지자적인 이상이다. 이런 주목할 만한 개종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관리와 통치 아래”⁷⁷⁾ 수행되어진 것이다. 비록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 가지 직무들을 폐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그의 홀과 통치를 세우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길 것을 명령한 것은 없다.⁷⁸⁾ 그리스도는 이런 목적을 지니고 오셨다, 그의 도래는 회복을 지적하며, 그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일시키신다.⁷⁹⁾

72) Ibid.

73) Ibid.

74) *Comm.*, on Is 45:23.

75) *Comm.*, on Is. 56:7.

76) *Comm.*, on Ps. 96:10.

77) *Comm.*, on Ps. 22:28.

78) *Comm.*, on Ps. 96:11.

“그리스도 없이는 온 세상은 무질서한 혼돈이요, 무서운 혼란”(엡 1:10)이 있을 뿐이다. 단지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통일 속으로 이끌어지게 된다. (엡 1:10). 모든 피조물들이 “저희의 진지한 열망에 따라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⁸⁰⁾이 이치에 맞는 일인 것이다.

④ **선교를 수행하는 장소**: 사실상 이 문제는 지리적인 용어 속에서 교회의 선교를 정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토의되어야 할 점이다. 루터를 고려하는 중에 보았던 종교 개혁자들은 지구의 “구석진 곳”을 의식하였었다.⁸¹⁾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the temple of God)은 이미 어느 곳이든 확산되어졌다.⁸²⁾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은 온 세상을 통하여,⁸³⁾ 가장 먼 지역에까지 퍼지게 된 것이다.⁸⁴⁾ 지구상의 정반대 편 사람들과 기타 먼 지역 민족들은 그리스도의 이상에 포함되어 지는 것이다.⁸⁵⁾

유대인들이 “바다의 섬들”에 관해 말할 때에 칼뱅은 일반적으로 지중해의 해안 건너편의 그리이스, 이탈리아와 스페인등 모든 나라들을 언급한다고 설명한다.⁸⁶⁾ 때로는 “미지의 땅”으로서 언급되어진다.⁸⁷⁾ 그 선지자는 섬들이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존귀한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섬들”이란 가까운 나라들 뿐만 아니라 가장 먼 나라이기도 한 것을 의미한다.⁸⁸⁾ 그리스도는 “섬들아, 나를 들어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사 49:1)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소개하면서, 주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에 있는 민족들과 유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민족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다.”⁸⁹⁾ 이 복음의 약속은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리라”⁹⁰⁾는 그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다.

79) *Comm.*, on Eph. 1;10.

80) *Comm.*, on Ps. 96:11.

81) *Comm.*, on Matt. 24:14.

82) *Comm.*, on Is. 66:20.

83) *Comm.*, on Ps. 117:1; 96:10.

84) *Comm.*, on Ps:18; 55:4; Rom. 10:18.

85) *Comm.*, on Matt. 24:11; Ps 97:8.

86) *Comm.*, on Is. 11:11.

87) *Comm.*, on Is. 66:20.

88) *Comm.*, on Is. 41:1.

89) *Comm.*, on Is 49:1.

90) *Comm.*, on Is 42:5.

시편기자가 사람들을 칭하여 기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류의 구원과 최상의 행복에 뿔뿔히 떨어져 있을 수 없게 연관되어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온 세계와 바다 저 편 지역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이제까지 유대의 좁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될 것을 예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⁹¹⁾

칼뱅이 그의 글 속에서 언급하는 그런 나라들은 Cedar, Tarsus, Pul, Lud, Egypt, Assyria, Persia, Babylonia, Media, Idumea, Ethiopia, 등으로 성경 본문에 언급되어진 것들이다. 때때로 칼뱅은 현대 나라들도 언급한다. 그는 주위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열렬한 욕망을 그의 편지 속에서 명백히 한다. 6월 10일 프랑스의 de la Roche-Poncay 부인에게 쓴 글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이들의 통치가 늘어나고 그의 교리의 좋은 씨가 넓게 흩어져 뿌려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요... 그분에게로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이 우리를 헌신케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생애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따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⁹²⁾

칼뱅은 영국에 있는 후원자(Protector)인 Somerset의 공작(Duke)인 Edward Seymour에게 그를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그 공작은 에드워드 4세가 성숙시기 때까지 섭정했었다. 종교 개혁은 그를 통해서 그 나라에 기초되었던 것이다. 칼뱅의 충고에 따라서 그는 유럽인이 추방한 부처(Bucer), 파기(Fagi), 오키노(Ochino) 그리고 순교자 베드로(Peter)를 받아들였다. 1548년에 칼뱅은 최대한에 완전한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도록 그에게 위탁했다. 그리고 구원의 교리가 듣기 위해 주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도록 명령했다. 1550년에 칼뱅은 그가 “복음의 영국에서 복음의 모든 순수성으로 재 국교회로 되고 교회의 회복에 대해 기뻐했다”⁹³⁾고 그를 보증했다. 그리고 1551년에는 칼뱅은 종교 개혁의 진보와 증가를 계속하도록 그에게 재촉했다.

칼뱅은 영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발전에 지속된 관심을 계속해 나아갔다. 추방된 거주자들을 위한 예배 시에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사용하도록 교회에 허락한 것에 대해

91) *Comm.*, on Ps. 79:1.

92) W. Stanford Reid, de.,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1982), 79.

93) Rooy, *The Reformers and Missions*, 209.

1550년에 있는 에드워드 4세의 대관식에서 그는 왕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 그는 1552년에 활력을 지닌 교회의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 권고한 케터베리 대주교에게 편지를 썼다. 1559년에는 새로이 왕관을 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또한 1560년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순수한 복음의 전진 속에서 그들이 인내를 하도록 런던의 한 주교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러한 노력의 지지 속에 칼뱅은 추방된 프랑스인들을 목회를 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훈련받았던 한 목사를 런던에 파송했다.⁹⁴⁾

비록 칼뱅은 존 낙스(John Knox)가 단 시간(1559)에도 스코틀랜드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진보시킨 것에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통일의 결여” (lack of unity)에 대한 그의 염려를 표현했다(van der Walt, 1985:135). 칼뱅은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자기 나라에서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호하고, 뜨거운 욕망으로 나타난 그와 같은 사람들에 애란(Arran)의 백작(Earl)인 제임스 해밀턴(James Hamilton)에게 기쁨을 표현했다.⁹⁵⁾

그는 Nivarre(1561)와 Admiral Coligny(1561)의 왕에게 그리스도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하는 것을 장려할 것을 위하여 같은 욕망을 담은 공문서를 보냈다. Bullinger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뱅은 복음의 진보를 방해한 개신교인들(Protestants)중에서 나뉘어진 사실을 애도하기를 계속했다(1553 과 1554). 그는 프랑크푸르트(1555)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명했다. 그는 그의 영역에 있어서 종교의 국가를 개혁하기 위한 일에 종교 개혁측보다는 로마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폴란드의 왕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1555).

그의 일련의 편지들은 프랑스 동료인 Admiral Coligny의 기소된 개신교인 들을 보호하는 파란처를 브라질에서 설립하는 기획을 위한 칼뱅의 지지를 확인한다. 이 기획은 선교를 위한 중요한 함축을 가진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하여 브라질에 도착한 목사들은 “칼뱅에 의해 서명된 그들의 신임장을 제출했다”⁹⁶⁾ Tupi 인디안들 사이에 머문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기 위한 그 그룹의 역사가인 Jean de Lery의 시도들은 *viagem a terr do Brasil* 역사 속에 기록되어진다.

94) Ibid., 209.

95) Clavin의 편지들(Letters of John Calvin)에서 Rooy, *The Reformers and Missions* 209에 재인용한 것.

96) J. Calvin, *Correspondence: Johannes Calvins Lebenswerk in seiner Briefen* (Neeukirken, 1962), 90.

⑤ **선교의 방법들(the methods)**: 복음의 전파하는 일은 보내는 자와 받는 자와의 사이에 접촉점을 전제한다. 칼뱅에 따르면, 이런 접촉점들이란 인간 본질의 구성 속에 심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바로 종교의 씨들이다. 그러나 인류는 받았던 빛을 덮어 감추는 것이다. 어두움이 빛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죄는 인류를 눈멀게 하고, 가는 길을 폐쇄한다. 사람들 이외에 나라들까지도 그들의 행위와 방향을 잃게 된다. 이때에 성령의 바로 교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은 것인 것에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데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⁹⁷⁾

여기에 선교를 위한 첫 째 우선하는 방법이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이다. 대체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칼뱅은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칼뱅은 그가 설교한 것들 중에서 겨우 몇 편만을 썼던 것이다. 보존되는 것이란 Raguénier de Bar-sur-Seine 라고 불리는 프랑스 망명자에 의해 속기로 적었던 것이다. 1559년 후에 칼뱅은 이것들 중의 몇몇을 출판하도록 허락했다. 이것은 몇 나라의 언어로 빠르게 번역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읽혀졌다.

칼뱅은 교수로서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는 망명자들인 그들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신학을 가르쳤다.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칼뱅은 이렇게 적었다. “*Donnez moi du bois, et je vous envoie les fleches*” (Give me your wood, and I'll send you the arrows).

제네바의 목사(Company)가 프랑스 그룹의 긴급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목사 선교사의 수를 증원하여 보내는 의미였던 새 회중들에게 “활을 보내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로부터 탈출했다. 제네바에서 공부했으며, 스위스에서 수년 혹은 수개월 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본토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았다. 그들 중의 몇은 직접적으로 Company에 의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1555년에 사무적인 등록이 시작되었다. 첫 두명은 1555년 4월 22일에 Piedmont 골짜기에 있는 Waldensian 교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파송되어 갔다. 후에 그들은 Politiers의 교회로 갔다. 1556년에는 세 명이 더 등록을 하였고 한 명은 Bourges로 갔다. 다음해에 열 한 개의 프랑스 교회가

97) *Comm.*, on II Cor. 3:18; 13:14.

목사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두 명은 프랑스가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에 근접한 두 섬들을 식민지로 조직하기 위하여 파송되었다. 파송되어진 목사들의 수효는 1558년에 22명에서 1559년에는 32명으로 점점 계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삼년 후에 제네바에서는 일 년에 열두 명을 파송하였다. 이러한 숫자는 목사들의 협회(Company) 서적들 안에 기록되어졌다. 보충된 등록에 의해서, 많이 불어나는 목사-선교사들은 제네바로부터 파송되어졌다. 예를 들면 1561년에는 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프랑스에 선교를 위하여 떠났다.⁹⁸⁾

많은 망명자들이 공부를 위해 프랑스로부터 도착했다. 그들은 네덜란드로부터, 벨기에, 독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태리 그리고 다른 유럽의 나라들로부터 왔다. 그들 모두의 욕망은 종교적 부흥 운동을 진척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만남 이외에, 칼뱅은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으며, 서신 교류를 계속했다.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개혁 교회의 확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저서 바로 그의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가 개정되었고, 라틴어와 불어로 일곱 번이나 출판되었다. 종교 개혁의 주제에 걸 맞는 그의 주석서들과 변증적 논문들,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들(Catechisms)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출판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541년에 교황 바울 3세(독일)에게 항의하는 팜플렛, 1545에는 라틴어와 불어 이태리어로 된 교리 문답, 1546년에는 체코어로 된 팜플렛, 1548년 후에는 영어와 스페인어 화란어,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어로 된 팜플렛을 출판했던 것이다.⁹⁹⁾

이런 것들 외에도, 칼뱅의 선교에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방법인 지침을 그의 주석서들에서 아주 구체화한다. 이사야 53:2의 구절을 “성령의 검에 의해 복음화”하라, 마 9:38의 주석에서 “추수 때에 종말까지 일꾼들을 보내는”것으로, 미가서 4:3과 문 10에 나타나는 방법은 모든 민족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오도록 접감은 태도와 설득력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며, 그리고 신앙을 짐 지우기 위해 외부의 힘을 가하거나 군사를 사용하지 말라.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보다는 누구에게나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성령의 재물은 우리 스스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받든 남에게 전해야 한다(고후 1:4 주석). 딤편 2:4에는 모든 신자들의 임무는 이웃들의 행복을 위한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구원을 확증케하고, 우리의 사랑의 임무가 경건한 기도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98) Sidney Rooy, *La patoral de los refugiados franceses en Ginebra 1546-1555*, *Vox Evangelii*, I.S.E.D.E.T. Buenos Aires, series 2, n.1. 1984, 117-151.

99) Rei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44-52.

것이라고 주석을 붙인다. 사 66:20의 말씀의 해석에서 과거에 한 민족을 기초함으로 생긴 인종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그의 백성을 사용하신 것을 밝힌다. 사 2:3에는 신자들은 그들의 형제를 향해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모본을 보여 길을 인도한다. 우리가 진지하고 열심히 말한 것을 실제로 수행함으로 확증해 보일 때, 이것이야말로 효과 있는 참된 교육방법인 것임을 선교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종교 개혁 시대 동안에 순교(Martydom)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신앙의 증거를 위한 것임이 고려되어 진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 의해 보충된 증거에 의해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Jean Crispin(1500-1572)은 그의 책 Book of Martyrs(1554)에서 Simon Goulart 목사에 의해 1619년 증보가 완성된 789명의 순교자들의 역사와 연관시키며, 2,120명의 개신교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암살되었던 명단을 밝힌다. 칼뱅은 목회를 위해 준비 중인 다섯 명의 학생들에게 보낸 두 번씩이나 편지를 썼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여행 중에 체포되었다. 1553년 5월 16일에 그가 죽기 전에 쓴 그의 마지막 편지글에는,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를 알리는 것을 위해 당신들의 피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신 장소로 가는데 방해할 수 없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당신들을 복종케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함으로 오직 당신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Reid, 79)라고 썼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를 수행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폭넓은 사상을 관찰했다. 칼뱅은 명백히 개신교 선교의 가장 높은 목표가 사람과 세상의 전적 회복인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의 저서 속으로 몰입했고 그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선교 속으로 자신을 잠기게 한 것이다. 그의 선교 사상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범 우주적 통치와, 구속 역사를 성취시키는 목적을 위해 도구로서 인간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

4. 나가는 글

에당초 이 논문 처음에 제시되었던 처럼 종교 개혁자들의 선교에 대한 부정적 반응들을 다섯 가지로 다시 정리하면, (1) 루터는 선교 행위(missionstat) 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상

(*missionsgedanke*)도 결여되었다, (2) 압도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증거로 개혁자들은 교회의 선교적 차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난다, (3) 루터에게는 놀랍게도 선교 신학의 부재가 있다, (4) 칼뱅에게는 선교 신학의 긍정적인 인식이 없다, (5) 루터는 불신자에게 기독교 메시지를 가져다 줄 모든 의무를 부인했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서 보면 다음 다섯 가지의 반응은 가치가 없으며 부적절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판자들의 대부분이 영미 출신들이다. 이것은 식민주의(*colonialism*)는 아니지만, 서구 문명의 지나친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 지난 세기말까지의 팽배했던 확장주의(*expansionism*)의 정신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맹목이 지리적인 공간으로, 문화-종교 중심이 먼 곳으로 덜 문명화된 지역에 기독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런 결과 중에 하나는 지구의 가장 먼 구석진 곳으로 향하는 일방 통행으로서 *missio Dei*를 보았던 것이다. 근시안적이며 치우쳐진 사고는 선교의 정당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배제한 채, 오로지 지구의 땅 끝까지 만을 너무 강조해 왔다. 루터나 칼뱅은 그들 스스로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러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종교 개혁자인 루터와 칼뱅은 선교 신학도 없으며 선교 실천도 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크리스천의 매일 매일 생활에서 정확하게 증인으로 행하는 선교의 중심을 보았다. 선교의 신학과 선교 수행은 총체적인 차원(A holistic dimension)¹⁰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과 같이 원리들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비록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럽인의 대다수가 우리의 주(Lord)요 구주(Savior)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는 것은 아니다. (2) 모든 피조물들과 열방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책임인 것이다. (3) 복음을 널리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책임은 목사들과 모든 신자들 그리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로 파송 받은 자들과 함께 그 몫을 나눈다. (4) 시간과 공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의 원래의 대리자이며 격려자이신 성령의 이끄심과 능력에 감수성을 요구한다. (5)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뜻에 따라, 복음의 확산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지휘하시고 촉진시키신다. 이것은 박해를 당하고 순교에 직면하더라도 그분의 목적이 신실해지기 위해 첫째로 중요한 것이다.

100) 참조, Eun-hong Kim, *Mission from Reformed Perspective as a response to the humanization debate: a comparison between the views of Thomas and Beyerhaus*, (Potchefstroomse Universiteit vir Christilike Hoër Onderwys, 2000).

이런 원리들 외에 다른 해석과 적용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상이함에 대한 의견을 서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 소고의 주된 논점이 아니다. 오히려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많은 부정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16세기의 루터와 칼뱅은 모든 유럽 국가 속에서 폭발적으로 반향(反響)을 일으킨 기독교 선교의 역동적인 선교 실천과 선교 신학을 가졌었다는 것이다.

결점과 장점을 지닌 과거의 모든 선교적 노력에 대한 심판을 할 때는, 우리를 쉽게 기만하는 시대 착오와 편협된 사고를 피해야만 한다. 역사, 문화, 종교적인 상황,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지리적인 측면조차 신중을 다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온 세기 동안에 우리가 지향했던 선교의 개념과 수행의 바른 심판은 앞으로 21세기를 위한 하나님의 바른 선교를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